

동학 농민 운동

06



월

일

해 보기

다음 중 고부(전라북도 정읍 지역의 옛 이름) 군수가 저지른 횡포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에 모두 ✓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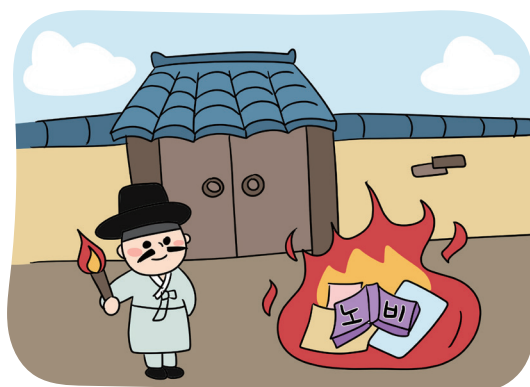
고부 군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울 때 백성들에게 돈을 내도록 하였어요.



백성들이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게 하였고, 내지 않으면 잡아들였어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백성을 잡아들여 옥살이를 시키고, 풀려날 때는 돈을 내도록 하였어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어요.

동학 농민 운동의 진행 과정을 알아볼까요?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라!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걷는 등 고부 군수의 횡포가 심했어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모이시오!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군사를 모았어요.

조선은 동학 농민군의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안 되겠다. 청나라에게 도와 달라고 하자.

청은 조선에 군사를 보냈고, 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따라 보냈어요.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겠군.

청의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지. 일본도 군대를 보내자.

청과 일본의 개입을 막기 위해 농민군은 해산하겠소.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조선 정부와 협상하고 스스로 해산했어요.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싸워 봅시다!



동학 농민군이 물러난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청일 전쟁을 벌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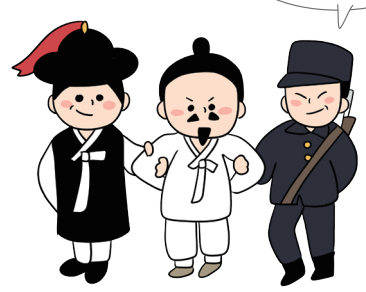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조선 정치에 심하게 간섭하자 동학 농민군은 다시 일어났어요.

농기구로는 일본군의 총을 못 이기겠어.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크게 패했어요.

녹두 장군 전봉준을 잡았다.



동학 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해산했고, 전봉준은 부하의 밀고로 관군에 잡혀 처형당했어요.

동학 농민군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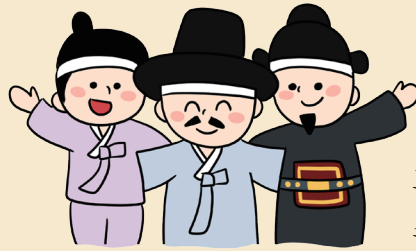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일부)

못된 관리가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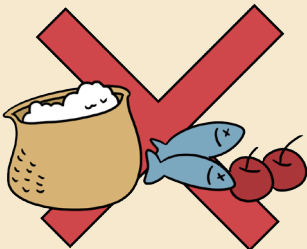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해 벌한다.

평등한 세상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세금을 바르게 걷는 세상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외국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을 엄히 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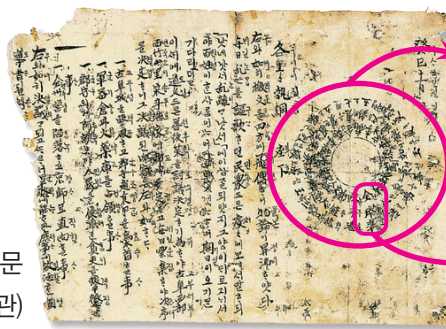
사발통문

사발통문이란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원을 중심으로 돌려가며 적은 문서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둥글게 하여 쓴 까닭은 이름을 쓴 순서를 알 수 없게 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발통문에는 “조병감을 비롯한 나쁜 관리들을 없애고 전주를 함락한 후 한양으로 나가자.”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작성된 사발통문
(국립 중앙 박물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전봉준

마무리 학습

»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까닭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들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여전히 심했기 때문에 관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봉준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다.

정리!



» 동학 농민군이 원하는 세상

못된 관리가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세금을 바르게 걷는 세상, 일본과 같은 외국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원했다.

1

동학 농민 운동의 진행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가 청이 조선에 군사를 보냈고, 일본도 군사를 따라 보냈다.



나 동학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크게 패했다.



다 전봉준은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군사를 모았다.



라 동학 농민군이 물러난 후 조선에서 청일 전쟁이 발생하였다.

2

다음 설명을 보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은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원을 중심으로 돌려가며 적은 문서를 말한다.

3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쓰세요.

동학 농민 운동

06



월

일

해 보기

★ 바른 답 확인하기 28쪽

다음 중 고부(전라북도 정읍 지역의 옛 이름) 군수가 저지른 횡포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에 모두 ✓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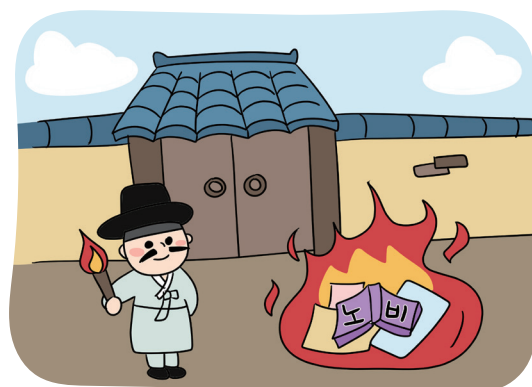
고부 군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울 때 백성들에게 돈을 내도록 하였어요.



백성들이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게 하였고, 내지 않으면 잡아들였어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백성을 잡아들여 옥살이를 시키고, 풀러날 때는 돈을 내도록 하였어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어요.



동학 농민 운동의 진행 과정을 알아볼까요?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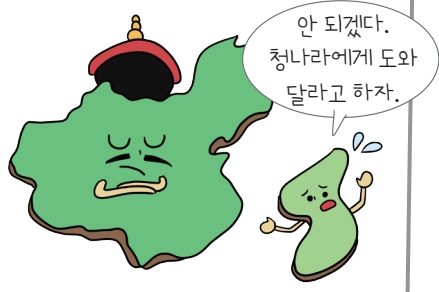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걷는 등 고부 군수의 횡포가 심했어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모이시오!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군사를 모았어요.

조선은 동학 농민군의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은 조선에 군사를 보냈고, 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따라 보냈어요.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조선 정부와 협상하고 스스로 해산했어요.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싸워 봅시다!



동학 농민군이 물러난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청일 전쟁을 벌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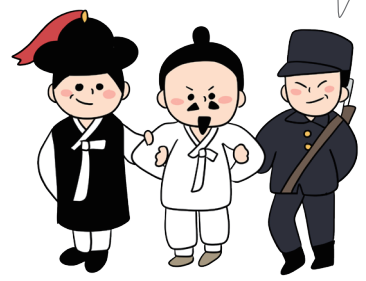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조선 정치에 심하게 간섭하자 동학 농민군은 다시 일어났어요.

농기구는 일본군의 총을 못 이기겠어.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크게 패했어요.

녹두 장군 전봉준을 잡았다.



동학 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해산했고, 전봉준은 부하의 밀고로 관군에 잡혀 처형당했어요.

동학 농민군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일부)

못된 관리가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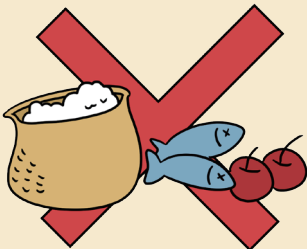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해 벌한다.

평등한 세상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세금을 바르게 걷는 세상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외국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을 엄히 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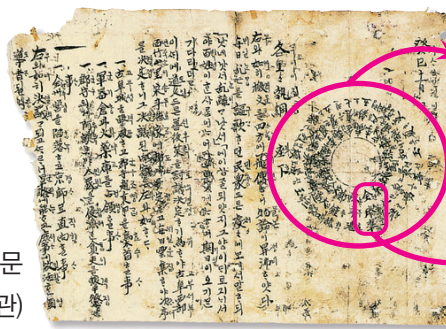
사발통문

사발통문이란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원을 중심으로 돌려가며 적은 문서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둥글게 하여 쓴 까닭은 이름을 쓴 순서를 알 수 없게 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발통문에는 “조병감을 비롯한 나쁜 관리들을 없애고 전주를 함락한 후 한양으로 나가자.”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작성된 사발통문
(국립 중앙 박물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전봉준



»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까닭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들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여전히 심했기 때문에 관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봉준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다.

정리!



» 동학 농민군이 원하는 세상

못된 관리가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세금을 바르게 걷는 세상, 일본과 같은 외국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원했다.

1

동학 농민 운동의 진행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다) → (가) → (라) → (나)



가 청이 조선에 군사를 보냈고, 일본도 군사를 따라 보냈다.



나 동학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크게 패했다.



다 전봉준은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군사를 모았다.



라 동학 농민군이 물러난 후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였다.

2

다음 설명을 보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사발통문**)은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원을 중심으로 돌려가며 적은 문서를 말한다.

3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쓰세요.

예시답안 못된 관리가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세금을 바르게 걷는 세상, 외국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원하였다.